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⑬

매화(梅花), 그 그윽한 향기

경상도 문경지역 깊은 산골을 지나다가 산골 장터에 묘목상이 팔려 나온 3년생 설중매 홍매를 보고 강릉의 아는 스님 절에 심어놓은 적이 있다. 강릉의 기후와 날씨는 매화, 특히 설중매(雪中梅)를 키우기에 아주 좋은 날씨이기때 그 절 마당 한 칸에 땅을 파고 심어놓았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꽃과 아름다운 화초들을 보았어도 매화처럼 사람의 마음을 잡아 이끄는 꽃나무는 전혀 본적이 없다. 키가 겨우 30c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매화가 가지에 수많은 홍매꽃을 달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전생애 사랑하던 사람을 만난 듯 했다. 그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다.



전기(田琦)의 '매화초옥도(梅花草屋圖)' (19세기, 종이에 수묵담채, 29×33cm)

지난 겨울에는 강릉에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그 절에 있다가 눈이 요사채 벽을 넘어 출입문을 막는 바람에 눈 속에 갇혀서 며칠간을 실내에서 지냈다. 먹고사는 걱정은 별로 없었지만 마당에 심어 놓은지 1년이 채 안된 작은 홍매 때문에 걱정이 돼 안절부절할 기억이 있다.

눈이 그친 틈을 타 눈을 치우고 나와 보니 조그만 홍매는 마당전체에 쌓인 2m가 넘는 눈 속에 갇혀서 눈삼으로 꺼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그냥 놔두었다. 눈이 녹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가보니 홍매는 여전히 건강히 살아있어서 마음이 무척 기뻐한 기억이 난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 매화에 관한 기록(1145년)이 나온다. 매화는 유교와 대승불교가 왕성하게 퍼진 한국, 일본, 중국에서 사는 대표적인 관상목이다.

연꽃이 불교를 대표하는 꽃이라면, 매화를 유교를 대표하는 꽃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다. 청렴한 선비는 그윽한 매화향을 품고 살던 고귀한 기품이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에서서서 500년 전에 쓰인 〈양화소록(養花素錄)〉이란 책에서 "매화는 천하에 으뜸가는 꽃이다. 원예를 배우는 선비들이 반드시 매화를 먼저 심으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싫어하지 않았다. 매화는 운치가 있고 품격이 있으므로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보면 매화는 선비의 꽃임이 틀림없다.

강희안(姜希顔)은 〈양화소록(養花素錄)〉의 화목9등품론에서 매화를 1품으로 분류했다.

매화는 만물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꽃을 피워 봄을 가장 먼저 알려줌으로써, 불의(不義)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삼았고, 회춘(回春)을 상징했다. 또한 사랑을 상징하는 꽃 중 으뜸으로 시나 그림의 소재로 많이 등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매화는 고려 말기의 문신인 통정(通政) 강희백(1357~1402)이 심었다는 기록이 있는 정당매(政堂梅)인데 수령이 약 630년 정도 된 백매이다. 경남 산청의 단속

매화는 유교, 대승불교 유행한 한·중·일 대표적 관상목 추위에 가장먼저 꽃 피워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과 회춘 상징

사지(斷俗寺地)에 지금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조선시대 원예가 유박은 〈화암수록〉에서 매화가 만화지상(萬花之上)인 '꽃의 정승' 자리를 차지한 까닭은 화사한 꽃잎보다는 그윽한 향기 때문이라고 했다. 매화향은 겨울을 견뎌낸 꽃답게 '가난하다고 해서 향기를 팔지도 않는다[梅花一生寒不賣香]'며, 은일(隱逸)하는 선비다. 포저 조익(浦渚 趙翼; 1579~1655)은 〈포저집〉의 '애매설(愛梅說)'에서 "수많은 꽃들이 제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보여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법인데, 매화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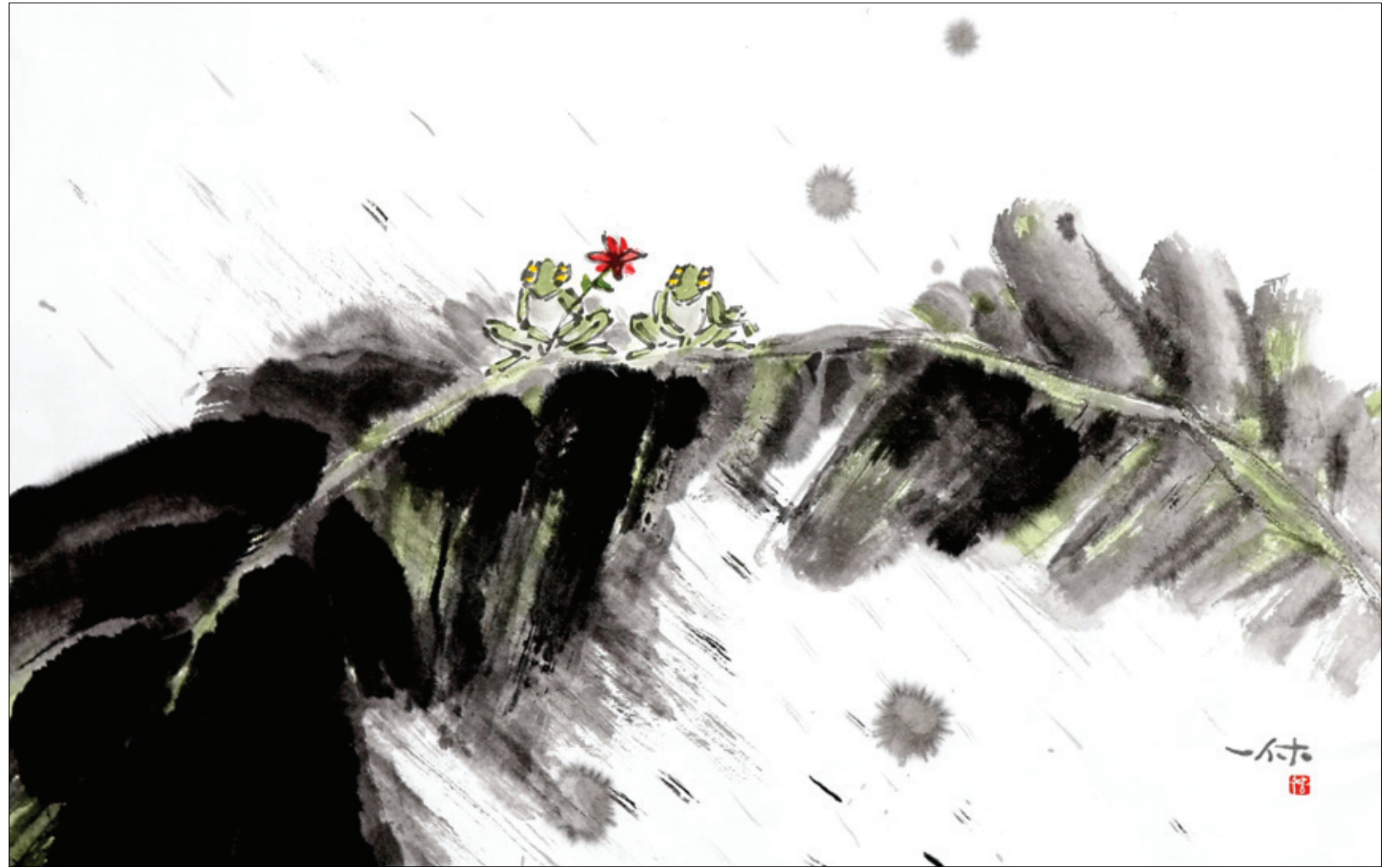
'시경'에서 '그것으로 인해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기이하기 때문이다[誠不以富亦祗以異]'라고 한 것을 보면, 이를 통해 곧고 깨끗하여 맑은 향기를 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파했다.

매화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퇴계는 매화가 피는 선달 초순에 운명했다. 그는 운명에 앞서 기르던 "분매(盆梅)에 물을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퇴계의 마음을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언제나 우리 한국 불교계는 매화향기 그윽한 아침을 맞이할까 기다려진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오늘 하루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햇살 좋은날은 햇살과 흰 구름을 즐겨보자
하루를 맞이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
모두 덕분에 덕분에 감사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 ⑩ 조선 중관해안 선사 '용문에 한가로이 머물며[龍門閑居]'

선과 화엄의 미학

山前風動心搖樹 (산전풍동심요수)
天未雲飛性起塵 (천미운비성기진)
坐覺虛空生大覺 (좌각허공생대각)
丈夫於世孰爲親 (장부여세숙위친)

산 앞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하늘 끝 구름이 날자 본성은 먼지를 일으키네.
잠깐 텅 빈을 알아차리면 큰 깨달음을 낳으니
장부는 세상에서 무엇과 친해하야 하리

중관해안(中觀海眼; 1567~?) 스님의 이 시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에 먼지가 일어난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부림이라는 '일체유심조'를 시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선문에 그 유래가 전해진다.

들리는지, 깃발에 바람이 흔들리는지 논쟁이 일어났다. 인종 스님은 여기에 답을 내어놓지 못했다. 그때 혜능(慧能)스님이 '바로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일갈했다.

당나라 때 유명한 강사인 인종(印宗)스님이 하루는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마침 바람이 불어 깃발이 나부꼈다. 학인들 사이에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는지, 깃발에 바람이 흔들리는지 논쟁이 일어났다. 인종 스님은 여기에 답을 내어놓지 못했다. 그때 혜능(慧能)스님이 '바로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일갈했다.

앞의 두 구에서는 〈화엄경〉에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만들어 낸다"는 화엄사상을 대구를 써서 간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제 3구는 잠깐이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단지

대상에 반연해 일으키는 것임을 알아차린다면 그 자리가 바로 큰 깨달음을 보였다. 이러한 큰 깨달음을 이룬 대장부가 과연 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용문에서 한가로이 머무는 삶 그것 이상이 아닌 것이다.

조선시대는 특히 선적 깨달음이 곧 화엄의 세계라고 하는 선과 화엄의 원융사상이 큰 주류를 이루게 됐다. 이시는 그야말로 선시로 빛어낸 '선과 화엄의 미학'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곧잘 '남 때문에' 혹은 '환경이 여의잖아서' 등으로 자신을 옹호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누구누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 자체인지, 내가 만든 그림인지 알아차려 보자. 마음의 꼭두각시노릇에서 벗어날 것이다.



원법 스님(운문사·문학박사)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고비누 재료 : 석자초, 홍남석화, 초홍유, 풍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주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제원'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주)현대에너지 2011년 최신행

농협용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용자저렴대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1평 ~ 20평까지

전조기(11평) 전조기(22평) 전조기(33평)

본사공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텝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를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0502-337-0108 /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